

독일,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... ‘격리 구역’은 제외
지난 1월, 독일 베를린 근처의 한 버팔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. 이는 37년 만에 독일에서 확인된 첫 구제역 사례였다.

이제 세계동물보건기구(OMSA)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‘백신 없이 구제역 청정국’ 지위를 다시 인정했다. 이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(BMEL)가 요청한 ‘격리 구역’ 설정을 OMSA가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.

현재 ‘격리 구역’으로 지정된 지역만이 이 청정국 지위에서 제외되며, 이 지역에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방역 조치가 최소한 2025년 4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.

독일 농업부 장관인 켄 외즈데미르(Cem Özdemir)는 “OMSA에 따르면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시 구제역 청정 상태로 돌아왔다. 이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, 공식적인 확인은 제3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”라고 강조했다.